

아시모리와
인연이 있는
인물전

시라카바파의 중심 작가로 활약 메이지 및 다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



1871년 폐번치현(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 행정 개혁)을 맞이한 당시 최후의 번주였던 기노시타 도시모토. 후사가 없던 도시모토의 사후, 기노시타 가문을 이은 인물은 조카 리겐이었습니다. 옛 각 번의 당주는 당시 도쿄에 거주하고 있어 리겐도 상경했습니다. 궁중 신년회 등에서 착용했을 리겐의 대례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

리겐은 도쿄에서 시인 사사키 노부쓰나를 사사하는 등 단가에 몰두했으며 도쿄대학 재학 중에는 오랜 지인인 무샤노코지 사네아쓰 등과 잡지 『시라카바』를 창간, 시라카바파 시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. 정력적으로 창작 활동을 계속하던 리겐은 뜻을 채 이루지 못하고 40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.

木下利玄

Kinoshita Rigen

(1886년~1925년)

더 알아보기! 기노시타 리겐

1

아시모리에 남아 있는 발자취

아시모리에는 리겐의 생가터 (오카야마현 지정 사적)와 '리겐미치'라고 불리는 산책길이 있습니다. 생가터 근처에는 시비가 세워진 다이묘 정원 오미즈엔이 있습니다.

2

시라카바파의 중심 작가로 활약

시가 나오야, 무샤노코지 사네아쓰, 아리시마 다케오 등과 함께 미술 문예 잡지 『시라카바』를 창간한 기노시타 리겐. 창간을 함께 한 그들은 잡지명에서 따온 '시라카바파'라고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.

3

메이지 및 다이쇼 시대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시인

아시모리번 2대 번주 기노시타 가쓰토시는 시인으로서 후반생을 은거하며 지냈습니다. 호는 조초시였습니다. 그로부터 약 400년 후, 후예인 리겐이 단가에 뜻을 품고 독특한 4.4조와 능수능란하게 구어를 사용한 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이는 '리겐조'라고 불리며 문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.